

폭염 대비 특별 전담팀 가동 “장수군 사칭 공문서 주의하세요”

무주군, 10월 15일까지 현장 중심 대응·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추진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군이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무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폭염 대비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며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 전담팀은 총괄 상황반과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 관리반으로 구성돼 대상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위험지역 관리, 취약계층 보호, 폭염 취약 사업장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마을 이장과 지역 자율방재단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정보 전달과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주민들이 한낮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170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2일까지는 무더위쉼터 127곳에 설치된 냉방기 252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재난방재 담당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냉방기기 전문가들이 참여해 냉방기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군이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필터 청소와 냉매 충전 상태, 정상 작동 여부,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며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무더위쉼터는 야간과 휴일에도 탄력적으로 개방되며 구급품도 비치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과 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45곳에 고정형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 안개형 냉각 시스템, 야외쉼터 등 폭

염 저감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무주읍과 설천면 2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해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양심양산대여소’도 무주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10곳에 설치·운영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속 온열질환 예방에 힘을 보탠다.

/무주=손흥기 기자

식품업체 대상 '장수군보건의소 사칭 가짜 공문' 보내 물품 구매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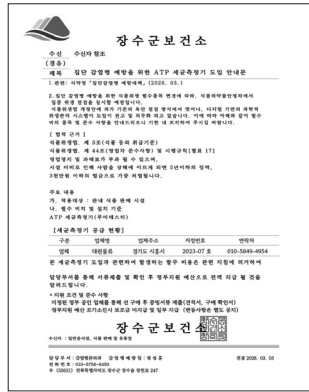
최근 장수지역 식품업체에 장수군보건의소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보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 같은 범행이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자 지역 내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이번 장수군보건의소 사칭 건은 식품위생법을 발미로 ATP 세균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게 주된 수법이다.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입금을 요구해 왔다.

문제의 공문은 장수군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장수군보건의소라는 가짜 조직으로 군 공무원을 사칭해 담당 기관의 직인, 연락처 등을 기재한 위조 문서로 지역 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비 구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시설 미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되면..가중 처벌된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범행은 일반음식점과 식품판매



가짜 공문 사진

및 유통업자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군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사체 발생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탑 점등’

무주군, 화합·평안 기원

무주군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열고 지역 발전과 군민 평안을 기원했다.

무주군은 12일 군청 앞 분수광장에서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화합과 군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찬환 무주군수 권한대행과 원통사 진일스님을 비롯한 지역 주요 사찰 주지 스님, 신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진행된 연꽃 무용을 시작으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점등식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불, 법, 승” 구호와 함께

대형 연등탑에 불이 밝혀지는 순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탄성을 쏟아냈다. 올해 봉축 연등탑은 높이 9m, 둘레 24m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1,100개의 연등이 설치돼 6월 12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환하게 밝혀진 연등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군민 화합과 치유, 희망의 상징으로 지역사회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점등식 이후 연등탑 주변을 도는 탑돌이를 함께하며 지역과 개인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무주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발전도 기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필리핀 마갈데시, 진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력 도시인 필리핀 마갈데시 관계자들이 12일 진안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생활 여건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진안군의 농업 현황과 재배 기

무환경을 점검하고 진안군의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갈데시 관계자들은 올해 신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무환경과 생활 여건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진안군의 농업 현황과 재배 기



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농업 운영 방식과 선진 농업기술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전라품목인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이 낮을 경우 차액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전라품목 차액지원’ △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서 농협 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타품목(벼) 차액 지원’ △출하수수료와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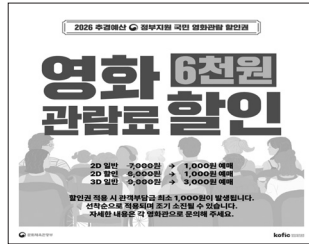
이 가운데 ‘전라품목 차액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

장수군은 장수한누리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관람객은 1인당 최대 6,000원의 관람료를 지원받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 부서 참여 ‘숏폼 콘텐츠’ 개최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공식사회 내부의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홍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청 내 부서를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를 개최했다.

이번 콘텐츠는 각 부서가 진안의 관광, 문화, 축제, 먹거리, 정채 등을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접 기획과 촬영, 출연까지 참여하며 진안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1개 영상이 접수됐으며, 군은 내부 심사를 통해 1차로 15개 작품을 선별했다. 선정된 영상들은 현재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방TV’에 게시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진안군은 앞으로 유튜브 조회수와 관내 행정망 투표 결과를 종합 반영해 최종 우수작 3편을 선정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독려하고, 참신한 콘텐츠 제작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 도입

진안군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의 혁신을 위해 2026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 토마토 연동하우스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을 설치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작업자 추종형 운반 로봇은 농작업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수확물이나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로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촌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체력 소모가 큰 운반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1일 작업량은 2.5배 증가, 작업 필요 인력은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